



보리맥주 국내 최대 재배지인 해남군 황산면에서는 매년 5월 '황산 연호보리축제'가 열린다.

<해남군 제공>

군, 황산면 일원에 246만평 규모

해남 황산면 일원에 세계적 규모의 꽃단지가 조성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꽃단지는 황산면 연호리 난이농원 0.56㎢(17만평)을 시작으로 연호지구, 우항리지구, 연기도 일원 7.57㎢(229만평)까지 총 면적 8.13㎢(246만평)에 이른다.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가진 해남의 특성을 살려 유류지 등을 꽃단지로 조성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계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꽃단지 조성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고 주민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작물을 선정해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최근 대규모 꽃단지 조성사업 용역에 따른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는 작물 선정과 주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경관 조성, 주민의 소득보전 방법, 경관농업과 경관관광에 대한 방향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관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호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타

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진 해남의 특성을 살려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꽃단지를 만들 것"이라며 "가공산업과 관광산업, 체험·숙박 등을 종합해 해남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 청정갯벌 개체급 서울 6성급 호텔 간다

굴보다 성장 빨라 고부가가치 내년 어가에 종자 무상 공급

신안군이 청정 갯벌에서 일반 굴보다 성장이 빠른 고부가가치 개체급 양식 양식 산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개체급 양식 산업은 타업종과 달리 사료나 비료를 주지 않고 자연의 생산력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저탄소 양식 산업이다.

신안 갯벌 면적은 339㎢다.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천혜의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신안군은 2018년 신안수산연구소를 신설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체급 전용 종자 배양장을 구축했다.

개당 400만원인 수컷 모패 15개를 사들여 종자를 생산한 후 2019년 12월부터 자르면 백산지구 등 9개소에 테이블식 시범양식장을 만들고 종자를 입식했다. 14개월이 지난 5월 현재 80g 이상, 출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랐다.

이 개체급은 다음 달 서울 강남 6성급 호텔에 전량 납품 예정이다. 생산량은 1.6t 정도이며, 값은 80g 이상 1개에 700~1000원 정도로 추정했다.

개체급 시범양식장은 남해안 수하식 양식방법과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해역 특성을 고려한 노출식 양식 방법이다.

매달 6~10회 공기 증류로 자연 노출돼 패각이 두껍고, 굴이 깊어 장기간 유통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청정갯벌에서 성장한 개체급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글리코겐, 비타민, 아연, 철분 등 무기질 영양분이 풍부하다.

수하식 굴에 비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길어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의 개체급 세척과 선별, 포장 시스템 등이 적용된 국내 최초의 '개체급 전용 처리시설'에서 위생적이며 안전한 개체급 생산으로 국내 유통·아시아권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새뜰마을' 공모 2곳 선정...국도비 32억 확보

삼산면 산림리·문내면 동리 40억 투입...빈집·배수로 등 개선

해남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새뜰마을 공모에 삼산면 산림리와 문내면 동리 2개 마을이 선정돼 국·도비 31억 28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농어촌마을의 주택정비와 재해위험 방지 시설 확충,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산림리와 동리에는 2024년까지 마을당 20억원씩 총 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 안길·배수로 개선, 빈집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CCTV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한다.

삼산면 산림리는 산을 등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상 급경사지 구간이 많아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노령층 주민들의 보행 사고 피해가 잦았다.

마을 안길이 협소해 소방차와 응급차 등 진입이 불가해 응급 상황시 대처가 취약한 환경으로 경사지 완화·난간 설치, 안길 확장·포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내면 동리는 공·폐기가 많고 균열된 담장이 방치돼 집중호우 시 붕괴사고와 주택침수가 우려되고 있다. 배수구가 불량하고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이



해남군 삼산면 산림리와 문내면 동리가 새뜰마을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많은 환경 개선·주택 정비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기반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2015년 화산 해장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 현산 향교, 2018년 옥천 대산, 2020년 화산 관동, 문내 예락 등 총 5개소가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돼 안심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103건 공모사업에 1천1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만큼 올해도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민간의 자치역량을 고도화해 민간 합작을 통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남악중앙공원 '도심속 예술공원' 변신

작가 22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시공의 문들' 등 18점 설치

무안 신도심 남악중앙공원이 도심속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무안군은 삼함읍 남악중앙공원에 '수변-상상이 자라는 나무'란 주제로 22명의 작가가 참여한 작품 18점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속 생태공원을 예술향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작품은 무안지역 작가 7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제작한 '시공의 문들'을 비롯해 도예, 스테인레스 조각 등이다.

'시공의 문들'은 무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컨셉트로 조성한 '문 시리즈'라 할 수 있다. 무안분청을 제작했던 가마의 벽돌을 활용하고, 무안지역의 고지도를 형상화했으며, 생태적인 무안의 환경을 표현했다.

또 정인수 작가의 작품 '연가', 박정규 작가의 '석화', 권숙희 작가의 '성장-돌꽃이 필 때', 윤귀연 작가의 'SEE-앗', 윤신의 작가의 '구름이 이끄는 생명' 등 도예작가의 작품들이 공원 내에 설치돼 무안분청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LED 조명으로 남악중앙공원의 밤을 밝혀주는



박상화 작가의 '사유의 정원'.

<무안군 제공>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박상화 작가의 '사유의 정원'과 정은화 작가의 '빛의 열매', 김유석 작가의 'Triangular Connect'는 공원의 밤 풍경을 새롭게 바꾸었다.

공원중앙의 분수대앞에 커다랗게 자리잡은 송일석 작가의 '흔들리며 피는 꽃', 김용민 작가의 'Imagine the blue', 김남술 작가의 'zero'와 같은 굵직한 조형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 외에도 버려진 재료를 활용해 만든 김문석 작가의 '강동로봇의 꿈', 무안의 느리지를 형상화한 허은선(폴로트)작가의 '느린물결', 자연의 빛을 응용한 변혜경 작가의 '빛으로 물들어', 공원 내 낮은 실개천에 물의 소중함을 부각시킨 작품인 조상욱 작가의 '물 만난 송사리' 등도 설치돼 주민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무안남악=김민준 기자 jun@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